

누가복음 11
Tape #C2533
By Chuck Smith

Tonight, chapter 11 i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gain, as Luke is pointing out the human side of Jesus, though He was God, He became man. He is the God-man. He is divine, and yet, He is human. The perfect balance. And whereas John points out the divinity of Christ in his gospel, which we will be entering into next, Luke points out the humanity of Jesus. And because this is the special emphasis of Luke, he does record more than any of the other gospel writers concerning the prayer life of Jesus Christ. And so Luke mentions many cases where Jesus was praying. And again, beginning the eleventh chapter, Luke tells us:

And it came to pass, that, as he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ceased, one of his disciples said un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s John also taught his disciples (11:1).

(오늘 저녁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서 누가는 예수의 인성 쪽을 지적하면서 그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이시며 또한 인간 이셨습니다. 균형이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요한복음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적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복음서의 저자들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에 관하여 더 많이 기록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곳을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시작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1:1).

Prayer is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but learned best through practice. I have observed that those men who are engaged in the all-night ministry of prayer here at Calvary Chapel, have really learned to pray. As I am in a group of men, and we are praying, as one of them leads out in prayer, I can always tell the men who are engaged in that all-night ministry of prayer, it shows in their prayers. It is reflected. They've really learned how to pray. Of course, if you spend a few nights in prayer, and you really learn, you've got a lot of chance to practice. But it really shows; it's really a skill that can be developed through practice.

기도는 배울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것 입니다. 여기 갈보리채플에서 철야기도에 중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들은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남자들 그룹에서 함께 기도할때 한사람이 인도하게 되는데 나는 그때 철야기도에 중사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들의 기도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것을 참으로 배운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당신이 기도 하느라 몇날밤을 보내면 기도하는것을 참으로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실습하는 기회를 만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실습을 통해 발전시킬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 disciples, one of them said, "Lord, just teach us to pray."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learn. We need to learn how to pray more effectively. And there is much to be learned on the subject of prayer.

Now Jesus taught by an example, giving to them a model prayer. Not one that was to be memorized and recited verbatim. But in the model there is the basic structure for all prayer.

제자들 중 한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만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기도 하는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주제에 관해 배워야 할것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범기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본을 보여 주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외어두었던것을 암송하셨던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범기도에 모든 기도를 위한 기본구조가 있습니다.

So Jesus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11:2).

Prayer always begins with relationship. If there is not an established relationship, there is no basis for prayer. The Father's ear is always open to the children's cry. And if you have that relationship with God where you can say, "Father," then you've established that relationship that opens prayer for you, effective prayer for you. But if you do not have that relationship, then prayer is meaningless. There is only one prayer that God want's to hear from you if you are not His child, and that's the prayer,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And that establishes then relationship, and opens this glorious opportunity of prayer for each one of you. But prayer begins with relationshi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11:2),

기도는 언제나 관계로 시작합니다. 만일 이루어진 관계가 없다면 기도할 기초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귀는 항상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 십니다. 만일 “아버지” 라고 부를수 있는 하나님과 의 관계를 가졌다면 당신을 위한 기도, 더구나 효과적인 기도를 시작 할수있는 관계를 이룩한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기도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각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기도의 기회가 열립니다. 기도는 관계로 시작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and that reverence of God. "Hallowed be thy name," or reverend by thy name.

The name of God is a name that in the Hebrew was an active verb, which meant, the becoming one. How it was pronounced is something that we are not certain of. There are those who say, "Jehovah." There are those who say, "Yahweh." All we have are the consonants, Y h v h. The left out the vowels, so that we do not know what was the actual pronunciation, but most scholars conclude that it was Yahweh. But it is the Hebrew word *the becoming on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와 하나님의 경외 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은 그 이름으로 경외 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능동형 동사로서 “되시는 분 (*the becoming one*)”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호와” 라고 발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이는 “야왜”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자음, Y H V H, 뿐입니다. 모음 글자는 없애 버렸기 때문에 실제 발음이 어떠한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결론을 내리고 히브리어의 뜻을 “되시는 분 (*the becoming one*)” 입니다.

The name of God is significant, because in it God expresses what He wants to be to you. He wants to become to you whatever your need may be. So the Jehovah, or Yahweh, was used in compound forms. You had Yahweh Tesitkonu, the Lord has become our righteousness. Yahweh Raffa, the Lord our healer. Yahweh Jira, the Lord our provider. And all of these compound forms of the name of Yahweh by which God expresses His nature, and that which He wants to be to you. In prayer it is helpful if you understand that God desires to become to you whatever your particular need might be. If you are praying for healing, then He becomes the Yahweh Raffa, the Lord our healer. He becomes what you need. And whatever might be the need that will be expressed in the prayer, is exactly what God wants to become to you. The One who will provide that need in your life.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이름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것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 "야웨" 는 복합형으로 사용 됩니다. 당신이 "여호와 신크누" 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와 랍과" 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복합형으로 나타난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당신에게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때 당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것을 알면 기도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만일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랍과 곧 병을 고치는 분이 되실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당신이 기도에서 표현하는 필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것이 되실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것을 공급해 주실것입니다.

"Hallowed be thy name." And let me say that as far as I am concerned, the only name that is reverend is the name of the Lord, Yahweh. I do not like the title of Reverend Charles Smith. Whenever I get mail to Rev. Charles Smith, I know that they don't know me. Because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reverend about the name Charles at all. And some write, the Reverend Charles Smith, which is suppose to be a little more impressive, and I like it that much less.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go all out, and write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 Just call me Chuck, please. "Hallowed be thy name." The reverence due to the name of God.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목사 찰스 스미스 (Reverend Charles Smith)" 라는 칭호가 싫습니다. 내게 우편물이 왔을때 그러한 칭호를 쓴것을 보면 그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스미스 라는 이름에 거룩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걸음 더 나가서 "가장 거룩한 목사 찰스 스미스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 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은 훨씬 더 싫어합니다. 제발, 그냥 척 (Chuck) 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Now the purpose of prayer is not to get your will done. The purpose of prayer is to accomplish God's will. So prayer moves in a cycle. It begins with God. His purposes, His desires, which He makes known to our hearts, which we utter as our prayer back to God. Which then God fulfills. And so prayer moves in a cycle, but the cycle begins with God, and the purposes of God. It is tragic that there are many people today who look upon prayer as an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of their will upon the earth. "Now, God, this is what I want. And I demand, God, that You do this." And they hold the scripture up to God, and make their demands.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그의 목적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되는것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들의 뜻을 이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께 들고 그들의 청구를 합니다.

Prayer is never intended, was never intended to be an instrument by which men's will could be accomplished upon the earth. And the primary thrust of prayer is always the will and the purpose of God. And so it is significant that the first petition in the prayer is, “Thy kingdom come.” God's will, God's purposes. That's what prayer is about.

기도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이땅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추진하는 바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번째 구하는것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로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도 입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on earth (11:2).

And so the purpose of our prayer should be to see the will of God being done here upon the earth. You say, "But didn't Jesus give us some pretty broad promises in prayer? Didn't Jesus say, ‘And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shall have them’? Didn't Jesus say, ‘And if ye shall ask the Father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in the Son’? Didn't He say, ‘Ask, and you shall receive’?" Yes, He did. But in each one of these cases, who was He talking to? Was He talking to the multitudes? Or was He talking to His disciples? And if you will read the scriptures carefully, you'll find that in each of these cases He was addressing His disciples. And what constitutes discipleship?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2).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 지는것을 보는것 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주 광범위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예수께서 약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 하리라. 그리하여 아들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고도 말씀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것이요’ 라고 하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 하셨나요? 군중에게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까? 성경을 조심해서 읽어 보면 이 경우들의 각 사건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신것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 합니까?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Jesus said,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So whatsoever thing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Who is He talking to? The disciples, who have denied themselves, and have taken up their cross to follow Him. Therefore, their prayers will be reflective of the life of self-denial, and the purposes of God being wrought. It would be the thrust of the prayer of that person who has denied himself, and has taken up his cross to follow Jesus.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때 무엇이든지 원하는것은 받은줄로 믿으라.”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 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부인 하는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삶의 반영 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힘있는 기도가 되는것입니다.

Prayer was never intended to be an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of man's will upon the earth, but the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of God's will upon the earth. For you see, the earth is in rebellion against God. The earth is under the power of Satan. His will is being done upon the earth. Satan is sitting upon the throne, ruling over the earth, the world's system.

기도가 사람들의 뜻을 이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는것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땅에 성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모든 제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Now it is God's desire to bring the earth back under His government, under His kingdom, and His reign. And so God gets men upon the earth who align with Him, and He establishes through them a beachhead here on the planet earth. And then He uses them as instruments to enlarge that beachhead, to take back the world for God. We're in a battle. And the purpose of the battle is the control of the earth. And we who have come in submission unto God, then exercise prayer, that power that God has given to us, in order that we might expand the beachhead that God has upon this planet. And bring His love and grace, and His power, and His kingdom into other lives of those around us. And that's why God has you here. And if you are using your time for any other purposes, you're just wasting your time as far as God is concerned. He has a 01

purpose and a plan for you being here, and that is the expanding of His kingdom upon the earth.

이 땅을 하나님의 정부와 그의 왕국과 그의 통치하에 다시 가져오는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위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통해 상륙거점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여 거점을 확대하여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지구를 돌려 받는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있으며 전쟁의 목적은 지구를 장악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상륙거점을 확장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런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그의 나라가 임하시게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을 볼때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땅에 있게 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But there are many evangelists today that want to change this prayer to, "My kingdom come, my will be done on this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But that's not what Jesus prayed. And that's not what we're to pray. There is so much selfishness in our prayers. So many prayers for personal gain and personal possessions, and those very things that could be extremely detrimental to our walk with the Lord.

그러나 오늘날 이 기도를 "내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것 같이 내 뜻이 이루어 지이다" 로 바꾼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많은 기도가 개인적인 유익과 소유를 위한 것이며 주님과 의 동행에 지극히해로운것 들을 구하는 기도들 입니다.

Having established first things first, then He moves on the personal petitions. An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personal petitions, as long as they are in the proper place.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11:3).

첫번째 것들을 먼저 이룬후에 개인적인 개인적 청원기도로 옮깁니다. 개인적인 청원기도가 순서에 따라 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3).

Interesting, isn't it? "Lord, give me enough bread for the 1983 that is coming up." No, God gives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That we might live a life of constant trust in Him. As thy day is, so shall thy strength be. So often God does not give us more than just enough for today. And you shouldn't be concerned or worried if you don't have enough for tomorrow. For the Lord said you shouldn't really be worrying about

tomorrow. Sufficient unto the day is the evil thereof.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God took care of us today, and the Father will take care of us tomorrow, and the next day, and each day that comes. And we don't have to worry.

재미 있겠습니까? "주님, 2007년이 가까이 오는데 한해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일 필요한 것이 충분히 없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씩 닥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Forgive us our sins (11:4);

Oh, what an important prayer.

for we also forgive every one that is indebted to us (11:4).

Forgive us, Lord. And Jesus teaches that we will be forgiven as we forgive others.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11:4);

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11:4)

주여 우리를 용서 하옵소서. 그리고 난후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때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There is much to be said by Jesus on the subject of forgiveness. Sufficed tonight that we just say it is one of the signs of true conversion, and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your mental health that you have a forgiving spirit. There are a lot of people today who are in institutions, who don't have to be there. But there is a bitterness, an unforgiving spirit that has tormented them, and has driven them to that point of being beside themselves. It is so important that you forgive. Now, we have asked God to forgive us, it's important that we be forgiven,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we forgive.

용서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충분히 말했지만 용서는 참된 변화의 한 가지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것은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속에 원한,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그들을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용서 해주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것은 우리가 용서해주는것입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11:4).

And so the model that He established for prayer: relationship; that purpose of prayer, the accomplishing of God's kingdom and His will upon the earth; and then our own personal needs.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11:4).

그래서 주께서 기도를 위한 모범을 만드셨습니다: 관계와 기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는것과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것,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것입니다.

Now continuing on the subject of prayer:

Jesus said unto them, Which of you shall have a friend, and shall go unto him at midnight, and say unto him, Friend, loan me three loaves of bread; for a friend of mine is on his journey and he has come to my house, and I don't have anything to set before him? And he from within shall answer and say, Don't trouble me: the door is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 not rise and give to you (11:5-7).

기도의 주제를 계속 살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11:5-7).

Now, it is helpful to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the culture of the Middle East, where hospitality is considered one of the highest virtues, and an essential. Whenever you have guests come, you are obligated as the host to set out food before them. And, however, they all lived in one little room, the whole family. And when they would go to bed at night, they would actually, just mats that they would roll out on the floor, and the whole family would sleep close together for warmth. There be a little fire in one portion of the room, and often the animals would in the room too. The chickens, and the lambs, or whatever, they would be in the one little room sleeping with them at night. And here you be all huddled together with your family, and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Now, once the door is closed, it was really considered impolite to knock on a closed door. When you closed the door that meant, "don't disturb." When you woke up in the morning, you'd open the door, and you leave the door open all day long. And the people just come and go all day long, get coffee, or tea, or whatever. But when at night closed the door, that was a signal, don't disturb. And so you get ready to go to bed, you close the door, and that was it. You huddle close with your family.

중동의 문화에 관하여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곳에서 호의는 가장 큰 미덕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으로서 소년들 앞에 음식을 채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한 방에 삽니다. 밤에 그들이 잘때에는 실제로 바닥에 매트 (mat) 를 깔고 온 가족이 따뜻하도록 함께 누워 잡니다. 방 한구석에 화덕이 있고 빈번히 짐승들도 방에 있습니다. 닭이나 양이나 무엇이 든지 그것들은 한 작은 방에 자게 합니다. 여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어울려 자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닫힌 문을 두들기는것은 정말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문이 닫혔다는것은 "방해 하지 마세요" 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면서 커피나 차도 마시고 무엇이든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문을 닫았을때 그것이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잘 준비를 하고 문을 닫으면 끝이 난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누워 잡니다.

Now, if you get up in that kind of circumstance, the whole family wakes up. Everybody is disturbed. The animals start squawking, and it's just a real mess inside. So Jesus paints a scene, midnight, the family is all asleep. The animals are all asleep. Here is some guy knocking on the door. Your neighbor, your friend says, "I need to borrow some bread, three loaves of bread. I have some company coming, I don't have anything to give to them." And, of course, he was in a bad way, because if you have company coming, and you don't have anything to lay before them, that was disgraceful too. So the guy inside the house says, "Go away, don't trouble me."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일어나면 온 가족을 깨우게 됩니다. 모두가 수면 방해를 받습니다. 동물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방 안에는 혼란 스럽게 됩니다. 예수께서 장면을 한 밤중에 가족이 모두 자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동물도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당신의 이웃에 사는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빵을 좀 빌려야 겠네, 세 덩이만 주게. 내게 손님이 왔는데 그들에게 내 놓을것이 없어" 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데 아무것도 대접할것이 없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제발 좀 가줘,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라고 합니다.

Now He said:

I say unto you, Though he will not rise and give him, because he is his friend (11:8),

Even though you're my friend, hey, that's no friend now, go away, friend.

but because of his importunity (11:8)

Now that word in the Greek is because of his *continued, shameless knocking*. Hey, he is not going to go away until he gets the bread, waking everybody up. You know that you've had it, he is not going to go away, he continues his shameless knocking at the door. So because of his continued, shameless knocking, you get up, and you go to get him his bread. Something you wouldn't do just because he was a friend, but something you do because the guy just won't go away. His continued, shameless knocking. He will a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Get out of here, take it."

이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11:8),

비록 자네가 나의 친구라 할찌라도 지금은 아니야, 친구여, 제발 가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11:8)

강청함 (importunity) 이 헬라말로는 계속적이며 부끄러움 없는 문 두들김(continued, shameless knocking) 이란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깨워서라도 빵을 얻기전에는 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는 빵을 얻을때 까지 첩피하게 느끼는것 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의 끊임 없는 부끄러움없는 문을 두들김이 그 집 주인을 일어나게해서 빵을 가지러 갈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라고 해서 해 줄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친구가 가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친구의 끊임 없이 첩피한것도 없이 두들기는것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가 요구 하는 만큼 넉넉하게 줄것입니다. "자, 가져 가거라."

Now Jesus is giving us an illustration of prayer.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Jesus often illustrated with contrast. So that the man knocking at the door is a type of a man praying. Asking for a need of a friend. And this man is persistent. He continues to knock on the door until he gets his desired response. Now, does that mean that we have to continue to pray until we break God down, until He gets so sick of hearing us that He finally gives in and gives us what we want? No, again we have a contrast. If a man, a friend, will do something because of persistency,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other words, he is using a bad illustration as far as the prayer was concerned. Here is a man who is being moved because of importunity, the persistency of the one knocking, but with God you don't have to be persistent. Your Father knows.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실례를 들려 주십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실례를 대조법을 사용하여 말씀 하신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는 사람은 기도 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친구에게 구하며 그는 부단히 구합니다. 그는 그가 기대하는 반응을 받을 때 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 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에 진력이 나서 결국 우리가 원하신 것을 주실 때 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은 대조법을 쓰십니다. 친구가 부단히 구할 때 사람도 그것을 들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들어 주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도에 관한 좋지 않은 실례를 사용 하셨습니다. 부단한 기도로 끊임 없이 두드리는 사람으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단히 기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We get another contrast down here. Again,

If a son asked bread of any of you that is a father, will he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ed for a fish, will he for a fish give him a serpent? Or if he asked for an egg, will he offer him a scorpion? And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Father? (11:-13)

You see, it's contrasting. If you earthly fathers know how to give good gifts, how much more? So the contrast is intended, not a parallel with God in the illustration.

여기에 또 다른 한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11-13).

대조 되는 것을 보십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 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여줄 때 평행법이 아니라 대조법을 사용하신 것 입니다.

And so Jesus said:

I say unto you,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For everyone that asks receives; and he that seeks finds; and to him that knocks it shall be opened (11:9-10).

Now again on the subject of prayer, Jesus is saying: ask, seek, knock.

James tells us that we have not, because we ask not. And that is so often true. People come and they pour out their tale of woe. "I don't know what I am going to do.

Oh, I just don't know what I am going to do." "Well, have you prayed?" "No." "Well,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9-10).

다시 기도의 주제에 관하여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일러 줍니다. 그리고 빈번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만 쏟아 놓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요." "기도 하지 않았으니 응답이 없죠."

Now it is also possible according to James, to ask, but ask amiss because my desire is to fulfill my will. It's prayer according to my will. I am trying to do something to fulfill my own desires. You ask amiss that you might consume it upon your own desires. So prayer is asking, it is seeking, it is knocking, and the promise is, that if you ask, you will receive.

야고보에 의하면 그것을 구하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뜻에 의한 기도이며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는것입니다. 당신의 정욕을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는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것이고 찾는것이며 두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우리가 구할때 받는다는것입니다.

Now you may not always receive what you asked for. Sometimes God has something better. And so there are many times that I have asked God for something, and He didn't give me what I asked for, but He gave me something so much better. And many times His answers of no were much better than His answers of yes would have been, as I learned later. And though I moaned and complained because of the no answer, there always came that day when I said, "Oh, thank you, God, you're so smart, and I am so glad that You didn't answer that prayer that I asked You for awhile back. Oh, thank you, Father." I realize the mess that I could have gotten into had God answered that prayer. Well, He did answer it, but He answered it, "No."

기도하면언제나 응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무엇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한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한것 보다 훨씬 더 좋은것을 주십니다.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안된다"는 응답이 "된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된다” 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불평했지만 항상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제가 지난날에 기도한것 응답 해주시지 않아서 참 기쁩니다, 오, 감사해요, 주님” 이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모든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을것임을 압니다.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대답은 “안돼” 라고 하셨습니다.

If you ask you will receive; if you seek you will find; if you knock it shall be opened (11:10).

And then again, another illustration. Earthly fathers, your son is coming to you, and he is asking, "Dad, can I have some bread?" And the dad hands him a stone, and says, "Chew on that, son." "Daddy, I'd like a tuna sandwich." And he gives him snake. "Daddy, can I have an egg?" And you offer him a scorpion. Jesus said, "No, you don't do that. You earthly fathers, you wouldn't want to do that to your own children."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10).

다시 다른 실례를 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와서 “아빠, 빵 좀 먹을까요?” 라고 구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면서 “아들아, 그거나 씹어 먹으라” 라고 하거나, “아빠, 나 참치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아빠, 계란 하나 먹어도 되요?” 라고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Now if you,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em that ask him? (11:13)

I am sick and tired of the Boogieman stories concerning God. Of someone who was seeking that God might fill them with the Holy Spirit, and then became possessed by some demon. What is that declaring?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Jesus said was the case. It's saying that our heavenly Father is evil. If someone was asking for bread, and He gave them a stone. They were asking for fish, and He gave them a serpent. Not so, that is a blasphemous concept of God. The Bible says that God delights to give good gifts to His children.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13).

나는 하나님에 관한 부기맨의 이야기에 진저리가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무엇을 주장 하는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 하시느 것과 정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악하다고

말하는것 입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돈을 주며 그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것 주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말합니다.

I've heard people say, "Oh, you better be careful how you open yourself to God. You just be careful 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Again, Boogieman stories. And they are blasphemous, because they condemn the very nature of our righteous, holy Father.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오, 당신을 하나님에게 개방할때 조심 해야합니다. 조심해야 되요. 무슨일이 일어날찌 모르니깐요.” 그것도 부기맨의 이야기 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Let me say this: I am not afraid one iota of anything that God has for me, or God wants for me. I want to always be totally be open to God. And my only fear is that I might not be open to something that God is wanting to do in my life. I am not the least bit afraid of anything that God may have for me, or want for me. I am not concerned that God is going to make some kind of fool out of me. I am perfectly capable of doing that for myself. What I am fearful is that I might have a closed door somewhere to God, and that He cannot do for me what He is wanting to do for me, because of my limited faith, or my preset positional ideas that have limited that work that God is desiring to accomplish in my life. I want to be totally open; I want everything that God has for me. I need everything that God has for me. And I don't want to have any closed doors when I come to God. Because I know that my Father loves me so much, and His desire for me is for the very best for me, because that's the way He loves me. And thus, I am not afraid at all of any work that God is seeking to accomplish in my life.

내가 이것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어떤것에 대하여도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 하는 유일한 한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룩하기를 원하시는것에 나 자신을 개방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것이나 원하시는 어떤것에 대하여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바보로 만들까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하는것은 나의 제한된 믿음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룩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수 없도록 내 마음의 어느부분에 문을 닫을까 하는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때 마음의 어느문도 닫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사랑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것 주시기를 원하시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어떠한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Now as Jesus was casting out a demon (11:14),

The demon had taken over the motor functions of this particular person's speaking apparatus, and caused the person to be dumb.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 내시니 (11:14),

귀신은 어떤 사람의 말하는 기관의 기능을 점령하여 그 사람을 병어리로 만듭니다.

I am in total disagreement with people who see demons in every malfunction of the human body. There are people that have gone overboard on this demon bit. And it's dangerous. There are demons, I recognize that. They are powerful, I recognize that. They are able to possess a human body and to distort the motor functions, I recognize that. But every malfunctioning motor function of the body does not indicate demon possession. And that is a very sad and tragic concept that has hurt a lot of wonderful people. In this particular case, the person's speaking ability was hampered by the demon.

사람의 몸의 모든 기능 이상이 있는곳에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과 진적으로 동의 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에 관해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것은 내가 인정 합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점령하여 운동 기능을 뒤흔들어 놓는다는것도 인정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의 모든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긴것이 귀신들린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단히 슬프고도 비극적인 개념 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귀신이 방해 했습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when the devil was gone out, that the dumb spake; and the people wondered. But some of them said, He cast out devils through Beelzebub the chief of the devils. And others, tempting him, sought from him a sign from heaven. But he, knowing their thoughts, said unto them (11:14-17),

Knowing that they were suspecting that maybe He was doing this by the power of the devil, He showed the inconsistency of the idea. He said,

Every kingdom that's divided against itself is brought to desolation;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falls. And if Satan also be divided against himself, how shall his kingdom stand? because you say that I cast out devils through Beelzebub. And if I by Beelzebub cast out devils,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they shall be your judges (11:17-19).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 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병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1:14-17).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 이런일을 행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고 무리들이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맞지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1:17-19).

Now, they did have exorcism rights, according to Josephus, that were handed down from Solomon. They say that Solomon in all of his wisdom did devise certain drugs and all and incantations for the exercising of demons. And there were those in those days according to Josephus who, using these ancient rights of Solomon, were able to exercise demons. And Jesus was probably referring to these widely practiced and totally accepted exorcism rights of which Josephus spoke.

And He said, "If I am casting out demons by Beelzebub, then who are your sons casting them out by? They'll be your judges."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축귀 행사를 했으며 그것은 솔로몬으로 부터 내려온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는 약들과 주문 (呪文) 을 고안해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고대방법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마도 이 널리 사용했고 전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던 조세푸스가 말하는 축귀법을 가리키고 있는듯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am casting out devils, no doub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11:20).

He is just asking them to use their reasoning powers. Jesus is reasonable, and He asks you to be reasonable. They are making a ridiculous accusation: He is casting out devils by the power of the devil. Jesus said, "Hey, that's ridiculous. If that's going on, then Satan's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It's going to fall. You better be rejoicing in what I am doing. But that's not the case. If I am casting out devils, I am doing it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better realiz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mong you.”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1:20).

주께서 그들의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를 요구 하십니다. 예수는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한 당신도 합리적이기를 요구 하십니다. 그들은 우스꽝스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이봐, 그건 웃기는 소리야. 만일 그렇게 되면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갈리는 것이고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로 기뻐할찌니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줄을 깨닫는게 좋을것이니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And when a strong man armed keeps his palace, his goods are in peace:
But when a stronger than he shall come upon him, and overcome him, he takes
from him all his armor wherein he trusted, and divides his spoils (11:22).*

Now, here we have a very important lesson concerning prayer. The strong man in this case is Satan. He is armed, he is keeping his palace, his domain. But thank God we can come against the domain of Satan in the name of One who is stronger than Sata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through the power and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 Christ, can spoil the stronghold that Satan has in people's lives.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11:21-22).*

기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는 무장을 하고 그의 집 즉 그의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것은 사단보다 더 강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영역에도 대항하며 들어올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로 사단이 사람들의 삶속에 구축한 요새를 무너뜨릴수 있습니다.

I am amazed at the control that Satan is able to exercise over people. I have seen people's lives who are so bound by the power of Satan, that they do not possess good common sense. They're irrational in regards to spiritual things. And there are those that when you listen to them talk, you observe their habits, you see the power of Satan manifested in such a strong way, we oftentimes just sort of back away, and say, "Man, there is no help for that person; they are really gone."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지배력에 놀랐습니다. 나는 사단의 세력에 너무나 얽매여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하여 비합리

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 하는것을 들어보고 그들의 습관을 관찰해 보면 사단의 권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나서 “야, 저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도에 지나쳐서 회복할 길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But that is because we are so overawed at the power of Satan to take hold of a person's life, that we fail to realize that there is One that is stronger than Satan. The Bible says,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I John 4:4). And God has left us here in order that we might exercise that authority and power of the name of Jesus, by destroying the work of Satan in the lives of those people around us. By binding Satan's power in the authority in the name of Jesus, setting them free from that terrible hold that Satan has upon them. And giving them the opportunity, without that cohesive force and power of Satan, perverting their reasoning processes, let them make a reasoning decision concerning their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한 개인의 삶을 점령하는 사단의 능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함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신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4).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능력을 묶음으로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들을 해방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정을 흐트러치는 사단의 능력과 끌어 당기는힘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야합니다.

"And so when one that is stronger comes, he overcomes him, and takes from him his armor." Satan's armor has been stripped. We have authority and power over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need to exercise that authority and power.

Then Jesus said,

He that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11:23);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사단의 무장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 대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11:23);

There is no neutral ground. "What do you think of Christ?" "Well, I don't know, I think He is a good man. He was a pretty good philosopher." "Are you for Him?" "No,

I am neutral." "No, you're not." Jesus said, "If you're not with Me, you're against Me. If you're not gathering, you're scattering."

중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 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편 입니까?" "아니요, 나는 중용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중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고 하셨습니다.

Two types of people: the builders, and the destroyers. Those who gather, those who scatter. If you're not gathering, you're scattering. You can't be neutral concerning Jesus Christ. He was a radical, you can't be neutral concerning a radical. You've got to have an opinion. You've got to form a decision. And not to be for Him is to be against Him.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들과 무너 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으는 사람들과 흩어 버리는 사람들 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으는 자가 아니면 헤치는 자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용이 될수 없습니다. 그는 급진파 였습니다, 급진파에게 중용이 될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를 위하지 않으면 그를 반대하는것 입니다.

Now, Jesus having cast out this demon, teaches a little bit concerning demons. And He said,

When an unclean spirit is gone out of a man, he walks through dry places, seeking rest (11:24);

So there is the intimation that demons, when they are not inhabiting a body, are restless. They seek to find a body to inhabit. And so when an unclean spirit is driven out of a body, through the authority in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ander through the wilderness areas restless, seeking rest, seeking a body to inhabit.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내신것이 귀신에 관해 조금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11:24);

귀신들이 육체에 거하지 않을때 쉼곳이 없으므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이 거할수 있는 육체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러운 영이 몸에서 쫓겨날때 그들은 쉼곳 없는 광야를 헤매면서 쉼곳과 살수 있는몸을 찾아다닙니다.

and finding none, he said, I will return to the house from whence I came out (11:24).

Now, evidently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which open the doors for demons to enter in to a person's body. There are other conditions which prohibit a demon from entering into a person's body. Jesus teaches that they looked for a body to inhabit. Evidently there are things that can restrict their entrance into a body. And I believe that that which can restrict, and does restrict, is the will of man. I do not believe that a demon can enter into a person against that person's will. Whether the person be born again or not. I do not believe that they can violate the free will of man, as far as taking possession of a body. But people are often getting involved in the occult, into those areas of spiritism, where they are opening themselves to the entrance of demon entities.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11:24).*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확실한 조건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것을 막는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살수있는 몸을 찾는다고 가르칩니다. 귀신이 몸에 들어가는것을 제한할수 있는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기엔 그것을 제한 할수있고 또 제한하는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거스릴수는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중생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들이 몸을 점령하는것에 관하여는 귀신들이 사람의 의지를 침범할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빈번히 사교(詐敎) 나 강신술 (Spiritism) 에 개입함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자신들을 개방합니다.

And by dabbling in the occult, by playing around with Ouija boards, or any of these things that have an occultish aspect to them, you are opening the doors for these demons, as you are seeking them to somehow mystically guide your destiny with the movement of the marker or with some other type of manifestation. And I believe that when you start getting into these areas, that you are beginning to open the door for demons to come, and begin to advise you, begin to direct you, they can inspire people in writing interesting detective stories. They can bring you fame, and the spirit writing, and all of these things are doors by which you can open yourself to being possessed by a demon entity. And so, I cannot warn you too much against the dangers of dabbling

with those areas of spiritism, contacts with spirits and all, because it is in those areas where you can open the door that demons can come in. But I do not believe that they can come into a person against that person's will.

호기심으로 사교에 개입하거나, 위지보드 게임을 하거나, 사교(詐敎)의 성향을 가진것들에 개입함으로 이러한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지를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보기를 추구할때 일어납니다. 내가 믿기에는 당신이 이러한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할때 당신은 귀신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당신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고 지도 하기 시작하며 재미있는 탐정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당신에게 명성을 얻게할수 있고 또 영적인 글도 쓰게 할수 있으며 이 모든것들이 당신 자신이 귀신들에 의하여 점령 되도록 허용하는 문들입니다. 강신술의 영역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귀신을 접촉하는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무 강조할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당신이 문을 열어주는 영역에 들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의지에 대항하여 들어 올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As God honors the free will of man, I think He forces Satan to honor the free will of man. So Satan comes in by guise. He leads you into the areas of dabbling into the occult, where gradually become open to these things.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도록 강요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해서 들어 옵니다. 사단은 당신에게 사교에 빠지도록 호기심을 일으키는것으로 이도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러한것들에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Several years ago in the little chapel, we had a young man come into the office, and he sat down, and he was obviously troubled. And he introduced himself to me. And he said, "My name is Dave Hunt." And he gave me a Time Magazine that I had read, a Time Magazine that dealt with organized crime and dealt with Lucky Luciano.

수년전에 작은 채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앉았는데 분명히 그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데이빗 헌트입니다." 그는 타임 잡지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타임 잡지는 조직된 범죄단과 럭키 루치아노 (Lucky Luciano) 를 다루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And in this particular Time Magazine, it had one of these little insert articles and the picture of this young man Dave Hunt, and said, "The mystery man, the Associate of Lucky Luciano." And this young man told me his story of how when he was growing up, he had an intense fascination for power. And when he was nineteen years old, he determined that he was going to possess power at any cost. And he said as he looked at

society, he realized that one of the strongest powers in society was the Mafia. Stronger than our judicial system, because it had bought off the judicial system.

그리고 특별히 이 타임지에 삽입된 여러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면에 조그마한 기사가 있고 이 젊은 청년 데이빗 헌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비의 사나이는 럭키 루치아노의 협조자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그가 자랄때 권력에 강렬한 매력을 느꼈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가 19세 되었을때 그는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권력을 소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사회를 둘러 보았을때 그 사회에서 가장 강한 권력중의 하나가 마피아 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조계 보다 더 권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조계도 매수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It had bought off the government leaders. And so, he theorized that Lucky Luciano at that time wa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And because his ambition was for power,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get next to Lucky Luciano and learn the secrets of power. Which somehow he was able to get in and become the associate, the constant companion of Lucky Luciano. And it was written up in Time Magazine. This mystery kid, young man, where he came from, nobody knew. But he was constantly with Lucky Luciano, the protégé of Lucky Luciano. And he said he enjoyed the power and all of the money, and the power that he had through these associations. The control over people, over circumstances.

마피아가 정부의 지도자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럭키 루치아노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에 대한 그의 야망 때문에 럭키 루치아노 곁에 가서 권력의 비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는 럭키 루치아노의 당에 들어가 그와 항상 동반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타임 잡지에 이 신비한 젊은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럭키 루치아노와 계속해서 동반했고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럭키 루치아노의 밑에 들어간것을 통하여사람들이 환경을 지배할수 있는 권력과 모든 돈을 즐겼습니다.

But he said then he began to study the reign of Hitler. And he realized that Hitler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world. And he learned that Hitler was being guided by men who were involved in what was known as the White Magic Fathers. Men who were into the occult. Men who were in contact with demons. And so, he decided to go down to Peru where at the fall of the Fifth Reich many of these men, the masters of the white magic who were guiding Hitler fled to Peru at the end of the war.

그러나 그는 후에 히틀러의 지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중의 하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천사의 마술사 (White Magic Fathers) 로 알려진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오 제국의 멸망시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곳, 즉 히틀러를 인도했던 천사마술조직의 선생들이 도망한 곳인 페루에 내려 가기로 결심 했습니다.

And he decided to go down and to look them up, and to learn from them the secrets of power. And so he went to Peru, and he got hold of these white masters. And he began to sit at their feet and learn the white magic. Began to dabble into this area of spiritism. And he said he was in his hotel room, and he was going through these incantations and all, when suddenly this presence came into the room. He said he was very aware of it, this spirit. And he said this spirit began to enter into his body, and he said, "Somehow I realized that if this thing enters into me, I no longer have power, I'll become its slave, I'll be under its power, and control."

그는 가서 그들을 찾아서 능력의 비밀을 그들에게서 배우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루에 갔고 이 천사의 마술사 선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발아래 앉아 천사의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강신술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문(呪文)을 한차례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귀신이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것이 영이라는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영이 그의 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어쨌든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것을 알았고 내게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구나. 나는 그의 능력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And he said, "I became extremely frightened." And he said, "Though I had only been to Sunday school a few times when I was a kid, I began to cry out, 'Jesus, Jesus help me, Jesus.'" Because he said, "I knew that if this thing took over I'd be lost." And he said, "I immediately packed my bags, I got a cab to the airport," and he said, "I waited at the airport for the next plane out of Peru." And he said, "I checked in, got back to Texas, I checked into a motel." And he said, "I was so shook, I didn't call anybody. I didn't let anybody know where I was."

그리고 그는 "나는 깜짝 놀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어릴때 주일학교에는 몇번 안 갔지만 나는 부르짖기 시작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도와 주세요, 예수님.'" 그가 말하기를 "만일 이것이 나를 점령해 버리면 나는 구원 받지 못한다" 는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장 집을 꾸려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나가는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집을 부치고 텍사스에 도착하여 어떤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정말 떨려서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디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디다" 라고 했습니다.

He said, "I was just so shook over this experience." And he said, "As I was sitting there in the motel, just thoroughly confused," he said, "the phone rang." And the fellow on the phone called him by his name, and gave him a cryptic message. And he recognized

that these white masters spoke in these cryptic messages, and so he was figuring out the message. And he just about had the message all figured out, but there was one part that the fellow gave to him that he couldn't remember, and he knew that if he could remember that, that he could put the whole message together.

그는 “나는 이 경험으로 너무나 떨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후 “내가 모텔에 앉아 있을때 정말 어리둥절 한것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암호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친사마술사들은 암호로 말한다는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지의 뜻을 알아 내려고했습니다. 암호의 의미를 거의 다 알아냈지만 상대방이 준 메시지의 일부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뜻을 다 맞추겠으나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And so he was just sitting there, thinking, “Oh, if I only knew that one part, if I only knew that one part of the message,” and the phone rang again. And the fellow said, “The part of the message that you can't remember is this:” And he said, “Wait a minute, who are you?” He said, “Hey man,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you guys are weird.” He said, “What do you mean, who are you?” He said, “I am a guard over here in Fort Hood,” he said, “I am on duty here, and some old man came by and gave me a hundred bucks to call you and give you this message.

그는 거기에 앉아서 “오, 그 부분만 알았던들, 메시지의 한 부분만 알았다면”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전화를 건자가 말하기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거야”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보요,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는 “나는 여기 포트 후드 (Fort Hood) 에 있는 경비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직무중에 있는데 어떤 늙은 사람이 오더니 \$100 을 주면서 당신에게 전화 하라고해서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거요” 라고 했습니다.

Gave me the number to call, told me your name, and gave me this message to give to you.” He said, “What did he look like?” And he described the white father that he was under in Peru. And he said, “He came back a few minutes ago and gave me another hundred bucks to call you back and say that this is the part of the message that you can't remember.”

“그는 전화번호와 당신의 이름과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던가요?” 라고 묻자 그가 페루에 있을때 그를 담당했던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위는 “몇분 전에 그가 다시와서 또 \$100 을 주면서 당신에게 전화하여 이것이 당신이 기억할수 없었던 메시지 부분이라고 말해주라고 하였습니다.”

And this kid, as he sat in my office, was shaking, visibly shaking. He said, “They follow me everywhere I go; I can't get away from them.” He said, “They wont let me

go." He said, "I became too involved." And he said, "They are right here, they are right here right now, they know what's going on." And I said, "Yes, Dave, I know that," but I said, "they'll never follow you out of here." An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e took authority and power over those forces of darkness, these fathers of the white magic, and their spirit forces. Because a stronger than Satan dwells in us, and He has destroyed the armor wherein he trusted. And we were able to spoil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we were able to set this young man free. Not because I have any great spiritual power. I am just a child of God like you, but I know the scriptures. I know my position. I know where I stand. I know the authority that I have in the name of Jesus.

이 청년은 내 사무실에 앉아있을때 눈에 보일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옵니다. 그들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개입 되었나 봅니다. 저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저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데이빗, 나도 그걸알아. 그러나 여기서 나가면 너를 결코 쫓아 오지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 즉 천사의 마술사나 그들의 영적인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속에 사단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분이 내안에 거하심으로 사단을 믿음으로 오는 무기들을 다 파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세나 권세들을 약탈할수 있으며 우리는 이 젊은이를 해방할수 있었습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압니다. 내 위치도 압니다. 내가 서 있는곳도 압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진 권세를 압니다.

I got a letter from Dave awhile back. He is now an evangelist, preaching the gospel. And, of course, he shared that he has not been troubled since that day.

Spirit forces are real. They are not to be messed around with. It is possible for you to open the door by dabbling in the areas of the occult. And there will come a time when, like with Dave, they will seek to take over your very body.

그 후에 데이빗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전도자 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적 세력은 실제로 있는것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장난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교의 여역에 이끌려 들어가도록 문을 열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데이빗처럼 귀신들이 당신의 몸을 점령하는 때가 올것입니다.

Now Jesus said, "They wander through these dry places, looking for a place to rest, a body to inhabit. And if they find none, they say, 'Well, I go back to the house from whence I was driven.'"

And when he comes, he finds it all swept and garnished. And then he goes out, and he takes seven other spirits that are more wicked than himself; and they

enter in, and they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11:25-26).

예수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집으로돌아가리라’ 하고 말한다” 고 하셨습니다.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11:25-26).

Now Jesus here is giving a very solemn warning concerning those people who have been set free from the power of Satan. You don't let a vacuum exist. You've got to replace. There is more than just driving Satan out, there has to be the moving in of the Spirit of God to take residence within. And just to go around delivering people can be the most harmful thing you can do for a person. People oftentimes come to me, and say, "Oh, pray the prayer of deliverance." And I say, "I pray the prayer of entrance. The entering of the power of Jesus Christ into your life. When He enters the darkness has to go. Light and darkness cannot coexist."

여기에 예수께서 사단의 권력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대치해야 합니다. 사단을 쫓아 내는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 가셔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것이 당신이 그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해로운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번히 내게 찾아와서 “오, 해방하는 기도 좀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주님이 어두움에 들어 가실때 어두움은 물러 가야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And so, rather than just praying for deliverance for someone, that the powers of darkness be loosed and send forth, I would rather pray that the power of God come in. The other is forgone conclusion when that happens. But there is real danger for a person just coming to God just for the help that they might get. Coming just for healing, rather than the Healer. Just for deliverance, rather than the Deliverer. Because you can end up in worse shape than you ever were if you don't substitute or replace that power within your life, that empty area.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두움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구조해 달라고 기도하는것 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두움의 세력으로 부터 해방되는것은 앞에서 말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도움을 얻기위해 나온 사람에게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고치는 분을 원하는게 아니라 병고침 만을 위해서

읍니다. 구조자 보다는 구조만 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속에 있는 그 권세를 대치시키지 않고 텅비게하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as he spake these things, a certain woman of the company lifted up her voice, and said unto him, Blessed is the womb that bare thee, and the breast which you have sucked (11:27).

Here is one of the first attempts to worship Mary. And what did Jesus do with her?

He said, Yes, rather, blessed are they that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11:28).

Now, she is attempting to worship His mother. "Blessed is the womb that bare you, and the breast from which you nursed." "Yes, but rather, blessed are they that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11:27).

여기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려는 첫시도를 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11:28).

이제 이 여인은 주의 모친을 숭배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And so when the people were gathered thick together, he began to say, This is an evil generation: and they seek a sign (11:29);

You remember back in verse 16, others tempting Him sought from Him a sign from heaven.

and there shall no sign be given it, but the sign of Jonah the prophet. For as Jonah was a sign to the Ninevites, so sha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11:29-30).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11:29);

16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했던것을 기억 하실줄로 압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11:29b-30).

How was Jonah a sign to the Ninevites? He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and he survived. He came out alive.

So Jesus said He would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So, the same kind of a sign of Jonah will be to this generation, as Jesus rises from the dead.

Now the queen of the south shall rise up in judge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she came from the utmost part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behold, a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The men of Nineveh shall rise up in judge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shall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behold, a greater than Jonah is here (11:31-32).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적이었습니까? 그가 삼일 낮과 밤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삼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실때 그것이 이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11:31-32).

This verse totally discounts the idea of reincarnation. For the men of Nineveh will rise in the day of judgement with this generation. You see, if reincarnation was a process by which men were gradually evolving into perfection, then in the day of judgement they wouldn't be the men of Nineveh. They would have been in their developed state along the line of reincarnation. But here, the men of Nineveh will be arising with this generation in the day of judgement, precludes the idea of reincarnation.

이 구절은 윤회 사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날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일 사람이 윤회라는 과정을 거쳐 완전하게 진화되어 간다면 심판날에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윤회의 과정에서 발전된 어떤

상태에 있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세대와 함께 일어설것이라고 말하며 윤회설을 배제 합니다.

Well, might the men of Nineveh speak out in the day of judgement against that generation, because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who was angry, who hated them, and who had one monotonous message? No hope in the message of Jonah, no grace in the message of Jonah, no love in the message of Jonah, just a message from a hateful prophet saying, "Forty days and comes destruction." And yet, they repented.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미워하는 요나의 단조로운 멧세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 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가득찬 선지자 요나의 멧세지는 소망이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멧세지로서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 하였습니다.

Now here was Jesus bringing the love of God, preaching the grace of God, extending to men the mercy of God, and they did not repent. Oh, I tell you the men of Nineveh will have a good case against this generation.

No man, when he has lighted a candle, puts it in a secret place, nor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that they which come in may see the light.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therefore when thine eye is single, thy whole body is also full of light; but if thy eye is evil, then thy body is full of darkness (11:33-34).

이제 여기서 예수는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공훈을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The entrance into men, the eye gate. And again, that which you are planting into your mind through the eyes.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If you sow to the flesh, of the flesh you're going to reap corruption” (Galatians 6:7-8). If your eye is single towards God, then your body is full of light, but your eye is evil, looking at evil things, and your body is full of darkness.

Take heed therefore, that the light that is in thee (11:35)

사람의 몸의 출입구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에 씨를 뿌리는것은 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 (갈 6:6-7). 만일 당신의 눈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당신의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만일 당신의 눈에 악이 차서 악한것을 바라보면 당신의 몸은 어두움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11:35).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so take heed that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not darkness. For if thy whole body therefore be full of light, having no part dark, the whole shall be full of light, as when the bright shining of a candle does give light. And as he spake, a certain Pharisee besought him to dine with him: and he went in, and sat down to meat. And when the Pharisees saw it, they marveled that he did not wash his hands before dinner (11:35-38).

몸의 빛은 눈입니다. 그래서 당신속에 있는것이 빛인가 주의하여 보십시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11:35-38).

Now this is referring to the ceremonial washing of hands, which they had an elaborate ceremonial washing of hands. Which Jesus said, "Oh, good enough." But they had to have one log of water, and you'd hold your hands outstretched in front of you in an upright position, and they would pour the water over your hands, as you rub your fingers and your hands together. And you had to be careful that the water didn't run down your arm, but dripped straight down, because if it runs down your arm, then your arm would be unclean, because the water that was cleansing your hands was coming down.

이것은 의식에 따라 손을 씻는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성들여 손을 씻는것입니다. 예수께서 "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그릇을 가지고 팔을 쭉 펴서 손을 위를향하여 모읍니다. 그러면 하인이 물을 부을때 손과 손가락을 문지룹니다. 물이 팔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물이 팔로 흘러 내리면 손을 씻은 물이 흘러 내려 당신의 팔이 불결해지기때문입니다.

The uncleanness from your hands was coming down your arms. So they had a way of holding your hands out here, and pouring the water. And then they would take, and you hold your hands down and pour another log of water over it, with your hands in a downward position, letting the water drop off. And they would do this several times during a meal. Jesus didn't fuss with that kind of a nonsense. And so this Pharisee was just sort of shocked that He didn't go through this little ceremony of washing.

손에서 불결한것이 당신 팔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내민 다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로 향하게한다음 아래로 향한 손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도록합니다. 그들은 식사중에 이렇게 여러번 손을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격식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지않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시다.

And so the Lord said to him, Now you Pharisees make the outside of the cup and the platter clean; but the inward part is full of ravening and wickedness. You fools, did not he, who made that which is without, also make that which is within? But rather give alms of such things as you have; and, behold, all things are clean unto you (11:39-41).

One of their little customs. If you just give alms of that which you have, everything is great.

But woe unto you, Pharisees! for you tithe mint and rue and all manner of herbs, and pass over the more important things of judgement and the love of God (11:42):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11:39-41).

이것이 그들의 관습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너희의 가진것으로 구제하면 모든것이 훌륭하니라.

화 있을찢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11:42).

Now, it wasn't really required in the law that you pay tithes of your spice gardens. But these guys did. And, of course, you wanted them to know what your little spices are like. You've got your rosemary, and your cumin, and various spices. Well, they all had their spice gardens, and they would shake out the little seeds, poppy seeds. And nine for me, one for God; nine for me, and one for God. And they were so careful, give God the tenth of His seeds. Very meticulous, give God His due. And yet, they were omitting completely the important things of judgement, of love and all. Exacting in the small matters, which really didn't count. And completely skipping over the important matters.

향품 정원의 십일조를 내라고 법이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냅습니다.
#####

Then Jesus said, (interestingly enough, talking about tithing,) Jesus said,
this you ought to have done (11:42),

Jesus confirmed that they ought to have done that. But He said,

you shouldn't leave the other undone. Woe un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uppermo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greetings in the markets. Woe unto you, scribes,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are as graves which appear not, and men walk over them and are not aware of them (11:42-4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미 있는건 그가 십일조에 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여야 할찌니라 (11:42),

예수께서 그것도 행하여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하시기를,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화 있을찢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찢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11:42-44).

Now, one of the purposes of whitewashing the graves in those days was to keep people from walking over them. Because if you walked over a grave, you were considered then to be unclean, and for seven days you couldn't go into the synagogue. You had to go through a right of cleansing, because you touched a grave.

그 당시에 무덤을 회를 칠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밟지않게 하기위함 이었습니다.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불결하게되어 칠일동안 회당에 들어가지못합니다. 무덤에 몸이 닿았으므로 결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But Jesus said, "You are like graves that don't appear. You are defiling men, and they don't even know it. Your influence on men is that of defiling men." There are those people whose very influence is an defiling influence, but the bad part is that men don't even know in their contact with them that they are being defiled by it.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도다. 너희는 사람들을 더럽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들을 더럽히는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더럽히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부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것입니다.

Then answered one of the lawyers, and said unto him, Master, in saying that you're reproaching us too. And Jesus said (11:45-46),

I haven't started on you yet.

Woe unto you also, ye lawyers! (11:46)

Now, He was not talking about the common practice of attorneys today, but these men who were lawyers as far as the Mosaic Law, and the interpreting of the Mosaic Law to the people.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1:45-46),

아직 네게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11:46)

주께서 오늘날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것을 말씀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의 법율사들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Woe unto you also lawyers!"

for you load men down with heavy burdens that are grievous to be borne, and yet yourselves will not touch one of the burdens with your little fingers (11:46).

"You are laying heavy trips on men." And boy, when you read how they interpreted the law of Moses, you read what a heavy trip they laid on men.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11:46).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도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것을 볼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Thou shalt not bear any burden on the Sabbath day." What constitutes bearing a burden? Do you have false teeth? That's bearing a burden. You can't wear your false

teeth on the Sabbath day. Do you have a wooden eye, glass eye? You're bearing a burden. You've got to take it out on the Sabbath day. Do you have a wooden leg? Bearing a burden. Pull it off on the Sabbath day. And yet, they had silly rules. You can only walk two-thirds of a mile, 1000 yards. But if you ran a rope from your house unto the end of the block, then that extended your house to the end of the block, and you could walk 1000 yards from there. And if the day before you would set your lunch a half mile away, then that constituted the border of your house, and you could walk to where your lunch was, and then you had 1000 yards from there to go.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짐도 지지말지니라.” 짐을 진다는것이 무엇입니까? 틀이를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엔 틀이도 끼우지 못합니다. 나무로 만든 눈이나 유리 눈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짐을 지고 있는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빼놓아야 합니다. 목발을 하고 계십니까? 짐을 지고 있는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떼어 놓아야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엔 단지 2/3 마일 즉 1,000 야드 이내로만 걸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줄을 당신의 집에서부터 불락의 끝까지 친다면 당신의 집을 불락끝까지 연장시켰으므로 격서부터 1,000 야드를 걸을수 있습니다. 만일 그 전날점심을 1/2 마일 떨어진곳에 두었다면 그것이 당신 집의 경계가 되며 점심이 있는곳까지 걸어 갈수 있고 격서 부터 1,000 야드를 더 갈수 있습니다.

And if you carried things under your arm, you could carry whatever you wanted. You couldn't hold it with your hand. Or if you would carry with the upper part of your hand, loop the thing over the upper part of your hand, then you could carry it. Or you could carry it under your arm. Because that didn't constitute bearing a burden. Now you could not tie a square knot, or a sailor's knot, but the woman could knot their girdles. So if you wanted to put a bucket of water down into the well, you couldn't tie a square knot, or a regular type of a sailor's knot on it, but the woman could tie their girdle to it and let the bucket down, and pull the water up.

만일 물건을 당신의 팔아래 넣어서 가져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갈수 있습니다. 혹은 만일 손의 윗부분으로 무엇을 옮기거나 손의 윗부분으로 물건에 고리를 끼면 그것을 옮길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아래에 넣어 옮길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지는것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각으로 짜매는것이나 선원이 짜매는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이 | ㄴ 들은 그들의 허리띠를 맬수 있습니다. 만일 물바켈을 셈에 집어넣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사각으로 매거나 선원의 끈매는것 같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허리끈을 맬수 있으며 바켈을 내려 물을 길러 올릴수 있습니다.

Now God, when He said, "Thou shalt not bear any burden on the Sabbath day," didn't have any of this junky stuff in His mind. But just let a bunch of lawyers get hold of something, and they can make something complicated out of the most simple case.

하나님이 “안식일에 짐을지지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때 그분의 마음에 이러한 쓸데 없는것들을 생각하신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사들은 어떤것들은 가장 단순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것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I want to sell you my pen. I take a dollar for it. Very simple transaction, isn't it? Take it to a lawyer. Let him draw up an agreement. You can see what a complicated issue they can make out of the pen. You know, when I sell it to you, then there is no recourse, you can't sue me in case you should happen to fall on this pen, would jab into you and all. And you know, I've got to protect myself in this sale, because you never know what might happen to this pen, once it becomes in your possession. And you can always come back on me, because I sold it to you.

내가 펜을 팔기 위해서 \$1.00 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사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그는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펜 하나로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수 있는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내가 펜을 팔았을때 상환청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펜위에 넘어져서 찢렸다면 나를 소송할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때 이 펜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때 이 펜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펜을 당신에게 팔았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나를 찾아올수 있습니다.

And these fellows were great at complicating issues. And so Jesus gets on their case, for complicating the issues. And then He said,

Woe unto you! for you build the sepulchres of the prophets, and your fathers killed them (11:47).

You build sepulchres for them, but your fathers killed them.

Truly you bear witness that you allow the deeds of your fathers (11:48):

그리고 이 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복잡하게 만든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찢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11:47).

너희 아버지들은 저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묘를 쌓는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11:48).

You agree to the deeds of your fathers.

for they indeed killed them, and you build their sepulchres. Therefore also said the wisdom of Go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and some of them they shall slay and persecute (11:48-49):

In other words, if a prophet comes to you, you will kill him, but yet you build sepulchres for those prophets that your fathers killed.

너희는 너희 아버들의 행실을 옳다하는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11:48-49).

바꾸어 말하자면, 만일 한 선지가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리라.

That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which was shed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may be required from this generation; from the blood of Abel [who was killed by his brother Cain] unto the blood of Zacharias (11:50-51),

Which was one of the last of the prophets to be killed in the Old Testament period.

which perished between the altar and the temple: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be required of this generation (11:51).

Why? Because they are going to kill soon the One of whom the prophets promised.

Woe unto you, lawyers! for you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you enter not in yourselves, and them that were entering in you've hindered (11:52).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 (자기의 형가인이 죽이자) 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11:50-51).

사가라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화 있을찢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11:52).

I think that this is very appropriate, for many of these professors in our theological seminaries today who cast doubt on the word of God, who, as Jesus said,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Claiming that they alone really understand the scriptures. Only they really know which scriptures are inspired, and those which are not inspired. And they will not enter into the kingdom themselves. But the problem is, they would hinder peopl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they try to stand in the way of people who would enter into the kingdom.

내 생각엔 이 말씀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가는 교수들에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만 참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자기네들만 어느성경부분이 영감을 받은것이고 어느 부분이 영감을 받지 않았는지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자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 들어 가려는 사람들 까지 방해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have taken an active opposition against any evangelistic efforts. Churches that are opposed and find fault with any endeavors of evangelism. They will not enter in themselves, but they would also go one step further, and hinder those who would enter in.

And as he said these things unto them,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really bate him,] they urged him vehemently, and they sought to provoke him to speak many things: Laying wait for him, and seeking to catch something out of his mouth, that they might accuse him (11:53-54).

Let's go chapter 12 and 13 next week, and maybe fourteen. Try it, read it, it won't hurt you. And so be it.

복음전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교회들은 전도의 노력에 잘못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들어가게 방해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11:53-54).*

다음 주에는 12장과 13장 을 공부하며 14장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공부하십시오. 손해 될것 없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bless you as you fight the crowds to return the merchandise that you can't use. You'll find that it is more easy to buy than to return. But may the Lord strengthen you and keep His hand upon your life, fill you with His love and His Spirit, draw you into an ever-deepening relationship with Him that you might be enriched in all things in Christ Jesus walking in His love after the Spirit.

주님이 함께 하시며, 쓸수 없는 물건들을 반환하는 군중들과 싸울때 하나님께서 축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사는것이 반환하는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을 따라 그의 사랑 안에서 행할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것에 부요하게 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실것입니다.